

曾瑞의 散曲 研究(二)

尹壽榮*

◁ 목 차 ▷

- | | |
|-------------|------------|
| I. 序言 | IV. 相思의 意味 |
| II. 曠世의 意味 | V. 自適의 意味 |
| III. 警世의 意味 | VI. 結語. |
-

I. 序言

本稿는 曾瑞의 散曲作品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나타난 인생의 의미와 세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생각해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학이란 결국 인생과 시대사회의 의미를 살피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그 문학이 지니는 의미는 「天地間」 곧 인간세상에서의 나와 타인 사이에 야기되는 상호모순과 융화를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발전을 통하여 이끌어 내어가면서 전진시켜나가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문학 가운데서 특히 산곡문학은 우리에게 있어 아직도 그다지 익숙한 분야는 아니다. 이는 다른 시가장르에 비할 때, 비단 우리 나라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中國에 있어서도 그다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산곡 가운데에는 난세를 살아갔던 漢族 지식인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숨결이 배어져 있다. 난세관·피세관·자연관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원대산곡보다 훌륭한 소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대산곡 가운데에는 난세문인들의 정서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 인생은 난세를 통하여 난세 속의 삶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있고 궁극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느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세문인의 사상과 감정세계를 살펴본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다는 것은, 바로 중국문학의 본질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된다. 본고는 중국 전통사회 사인계층의 난세관·피세관·자연관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해도 가하다.

II. 嘆世의 의미

탄세란 문자 그대로 「세상을 한탄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드는가? 한숨짓게 만드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시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전도된 시비·혼효된 시비가 사람들을 고뇌와 비탄 속으로 젖어들게 한다. 옳은 것이 그른 것으로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으로 된다. 이른바 「非是是非」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 비시시비라는 전도·혼효된 시비관은 어떻게 하여, 무엇을 근거로 하여, 생겨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명리에 대한 추구의 욕념 때문이다. 일종의 먹이 다툼이 초래한 결과이며, 이는 실상 인간이라는 동물계 특유의 두뇌싸움을 통한 투쟁 양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먹어야 산다는 그 단순명료한 이치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더 잘 먹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불길이 되어, 인간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져가고 쓸쓸해져가게 된다.

이 비시시비라는 전도된 시비관은 荀子로부터 제기되고 있다.¹⁾ 사람들은 세상을 「是是非非」, 즉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인식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다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전도된 시비관은 세상을 날로 각박해지고 살벌해지고 삭막하게 만들어간다. 이때 世上을 한탄하고 삭막하고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초월하려는 피세사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신성소설들이 나타나는 시점, 혹은 온갖 종류의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되는 시점도,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이다. 노장사상은 孔孟의 「避人思想」과는 달리 철저한 「避世思想」, 곧 세상을 아예 등져버리고자 하는 「피세사상」을 강조한다. 元代는 소수의 이민족 蒙古族이 절대다수인 漢族을 지배했던 시대이다. 武力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착취에 의하여 피폐된 삶을 강요당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였다. 袁驥는 〈金元시대 揚子江 이북 인민의 삶(金元之際江北之人民生活)〉이라는 一文에서 다음과 같이 이 시기의 참혹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1) 王忠林 註譯 《荀子》〈修身〉篇. (臺北: 三民書局, 1977. 2), 67쪽.

「蒙元은太祖 6년부터南下를 시작하여 金을 공략하였으며, 世祖 17년에 이르러서는 宋을 공격·멸망시켜 中國 전역을 점령하였다. 그 사이의 58년은 양자강 이북의 지역에서 天翻地覆의 浩劫이 전개된 시기였다. 살륙과 약탈의 참혹함, 부역의 과중함과 더불어 인민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노예로 삼았으니, 이는 참으로 史書에서 드물게 보이는 바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한숨짓게 하는 바이다.(蒙元自太祖六年, 南下攻金, 迄世祖十七年, 滅宋淹有全夏, 其間垂五十八年, 大江以北, 悉陷入天翻地覆之浩劫當中, 殺掠之慘, 役賦之重, 與人民之轉死溝壑, 夷爲奴隸, 殊爲史所罕觀, 令人浩歎!)」²⁾

동란시기에 몽고군 혹은 도적떼들에게 도살당하거나 질병·기근으로 사망한 숫자가 얼마인지 비록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趙岡·陳鍾毅 공저 《中國土地制度史》 제3장 제2절「表 三~二, 中國歷史上的人口變動」을 보면, 宋·金·元 사이에 중국에서 얼마나 격렬한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서기 1193년의 人口가 120.0 백만명이던 것이, 그로부터 약 100년 이후인 1291년에 이르면 59.8 백만명으로 減少하게 된다. 이 統計數字로부터 전란 중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참상을 겪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 漢族의 서글프고 비참한 심경을 가장 진실하고 절실하게 묘사한 장르 중의 하나가 원대산곡이라는 그 당시의 대표적 시가장르였다.

먼저 曾瑞의 작품 한 수를 예로 들어 그 가운데 나타난 탄세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南呂〕四塊玉：嘆世

萬丈潭, 千尋塔, 一線風濤隔仙凡, 勸君莫被虛名賺, 無厭心, 呆大膽, 誰再敢.⁴⁾

세상이란 萬丈 깊어 못 속과도 같은 것이고,
천길 깊어 구덩이 속과도 같은 것이다.
一線의 풍랑 파도가 仙境과 俗界를 隔絶시킨다.
그대여 권하노니
헛된 명성에 사로잡히지 말 것이다.
虛名의 세계는 실증을 모르는 세계이며,
어려석은 짓을 대담하게 하는 세계이다.
누가 감히 그곳으로 다시금 뛰어들 것인가?

2) 袁驥 《元史研究論叢》 初版,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4, 9), 48쪽.

3) 趙岡·陳鍾毅 共著 《中國土地制度史》 (臺北: 聯京出版事業公司, 1982.), 153쪽.

4) 隋樹森 《全元散曲》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6, 4), 473쪽.

會璣는 이 작품 가운데서 그가 살아간 세상을 「만장 깊이의 못(萬丈潭)」 「천길 깊이 구덩이(千尋壑)」에 비유하고 있다. 이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얼룩져 있는 세상이다. 名은 名利의 준말이다. 虛名·虛利라는 현란한 그림자에 도취하여 우리 속증은 취생몽사한다. 욕망을 버리고 허명을 단념하면 선경이 펼쳐지게 된다. 會璣는 「一線風濤隔仙凡」이라고 노래했다. 仙凡의 차이는 一線의 파도에 의하여 구획된다. 일념치차로 인하여 선계와 속계가 구분된다. 우리가 속계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은 바로 이 허명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허명은 마치 낚시 바늘 끝을 감추고 있는 미끼 같은 것으로서, 중국으로는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한다. 賺은 陷害·詐騙의 의미다. 「貪瞋癡」라는 三毒은 바로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고, 탐욕이 분노와 무지를 낳는다.

김현은 《행복한 책 읽기》 가운데서 인간의 「욕망과 문학 사이의 깊은 관계」에 대하여 도처에서 여러 차례 깊은 사고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구멍의 공에 제일 깊게 사유한 최초의 인물은 노자이다. 그는 항아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항아리의 텅 빈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빈 곳이 있어야 채울 마음이 생겨난다. 공은 행위, 욕망의 행위의 밑바닥이다. 장자는 그것을 더 논리화해서, 구멍을 뚫으면 혼돈은 죽는다라고 말한다. 그것을 뒤집으면, 구멍이 있으면 혼돈은 없다. 그 구멍은 질서, 사회생활의 기본틀이다. 구멍이 없는 존재는 완전자 —신·악마·자연……— 뿐이다. 구멍이 있는 것은 모두 인간적이다. 인간은 구멍의 모음이다. 채워도 채워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들……” 5)

허명은 우리 인생을 「無厭心」이라는 욕념의 구덩이 속에 빠뜨리게 한다. 欲은 谷과 欠의 合字이니, 6) 무릇 모든 욕념은 우리를 한없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다. 「呆大膽」은 욕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냉철함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중생들의 모습이다. 우리 인생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욕망이야말로 실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을 죽음의 골짜기 속으로 휘몰아가는 수레바퀴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욕망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이며,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며, 그런 자만이 비로소 「誰再敢」의 의미를 체득한다.

5) 김현 《행복한 책 읽기》 (민음사, 1994. 7. 서울), 71쪽.

6) 柳正基 《說文解字》 亞細亞文化社, (1988. 서울), 142쪽.

[南呂] 四塊玉：嘆世

羅網施，權豪使，石火光陰不多時，劫活若比吳蠶似，皮作錦，繭做絲，蛹猶死。⁷⁾

그물이 쳐져 있다.
 권세가들이 쳐둔 그물이다.
 부식들의 불빛 같은 단명한 삶이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풀이
 마치 뽕나무 땅의 누에 같은 처지다.
 결국에 가서는
 겹질은 비단으로 되고,
 비단실이 된다.
 그리고 속에 있는 육신은
 뜨거운 물에 삶겨지게 된다.

이 작품 속에서 曾瑞는 그가 살아간 세상을 「그물이 쳐져 있는 곳(羅網施의 處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그물은 세상의 권세가가 쳐둔 그물이다. 그것은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불쌍하고 나약한 백성들을 사로잡아 두기 위한 그물이다. 그렇게 그물에 걸려, 그물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의지할 바 없는 가련한 백성들의 처지라고 인식하고 있다.⁸⁾ 그리고 曾瑞는 이를 통하여 원대를 살아가는 漢族들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老子》 73장에는 「天網恢恢，疏而不失」⁹⁾이라는 글이 보인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언제 머리 위로 덮쳐 내릴지 모르는 天網 곧 하늘의 그물과의 싸움이며, 그 天網으로부터 피해나가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본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杞나라 사람의 걱정 「杞憂」¹⁰⁾에서 이미 시작된 인류의 본능적 위기의식일 수 있다.

石火는 石中火이며, 부식들을 켜는 순간 반짝하며 빛나는 불꽃이다. 曾瑞는 인생 무상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를 石中火에 비교하고 있다. 이는 陶淵明을 위시한 중국의 거의 모든 시인들이 절감했던 바이었다.¹¹⁾ 그렇게 무상한 인생

7) 隋樹森, 같은 책, 475쪽.

8) 亂世狀況下的 酷吏들이 恣行하는 行悖에 대하여 鄭東周는 그의 長篇敘事詩集《論介》를 통하여 痛烈하게 描寫하고 告發하고 있다.

9) 余培林 譯註《新譯 老子讀本》, (1975. 7. 臺北), 110쪽.

10) 《列子》〈天瑞〉篇.

11) 陶淵明의 人生無常觀에 대해서 筆者는 〈陶淵明 詩에 나타난 人生無常觀〉이라는 拙稿(《江原 人文論叢》제 6집, 139 - 187쪽,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12.)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난세관과 무상관이 오버랩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슬프고 쓸쓸하게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曾瑞는 우리 인생을 누에고치의 처지에다 비교하고 있다. 「할(劫)」은 신중·穩固·근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는 「고생하면서 진전공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할활(劫活)」은 이 작품 속에서 누에의 삶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그와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元代의 漢族을 형상화한 것이다. 曾瑞는 漢族들의 처지를 「벌레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끝내는 삶겨 죽어가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라고 생각한다.

[中呂] 喜春來：闕世

佳章歌語醒時和，白雲陽春醉後歌，簪花飲酒且婆娑，開闕鎖，閑看惡風波。¹²⁾

아름답고 부드러운 詩歌
술에서 깨어나면 노래 부르리.
白雲陽春 고운 曲調
얼근히 취한 후 노래 부르리.
머리에 꽂가지 꽃은 채로
술 마시며 비틀비틀 걸어가리.
심중의 율적함
풀어 해친다.
한발 물러서서
험악한 세상풍파
한가로이 바라다본다.

이 작품 가운데서 曾瑞는 시와 노래와 술과 꽃을 통하여 자적하는 삶의 정경을 그려내고 있다. 그는 관료사회에로 나아가는 길목이 봉쇄당한 시대사회 속에서, 다른 元代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無意近長安([관료세계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長安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노래한다. 이는 물론 「저 포도는 시다」라는 우화 속의 여우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시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曾瑞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상황 속의 유일한 선택, 그것이 자적하는 삶의 향유였다.

曾瑞는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閑看惡風波」라고 노래했다. 이는 陶淵明의 인

12) 隋樹森, 같은 책, 491쪽.

생의 자세를 생각나게 하는 詩句이다. 원대사회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알려져 있다.¹³⁾ 그 당시 漢族들은 「세상이 바로 지옥이었던 상황」도 목도했을 것이다. 그 잔인한 정복의 시기 이후, 가혹한 수탈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曾瑞였으므로, 이 세상을 「험악한 풍파 몰아치는 바다 같은 형국」이라고 규정했다.

III. 警世의 意味

警世란 문자 그대로 「세상에 대한 경계」라는 의미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위태하고 외롭고 서글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흔히들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나그네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길은 과연 李白이 〈蜀道難〉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마치 「푸른 하늘로 올라가기 보다 어려운(難於上青天)」, 고통스러운 길이다. 李白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 詩를 지었을 것이겠지만, 人生行路를 걸어가는 험난함이 바로 蜀道の 險難함이라는 比喩는 실로 탁월한 바가 있다.¹⁴⁾

曾瑞는 그의 산곡작품을 통하여 이 험난하고 쓸쓸한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철학 혹은 인생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는 삶의 여정을 통하여 서서히, 그리고 차연히, 「世上物情」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게 된다. 우리는 마치 소가 채찍을 맞고 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맞아가며 아파하며 배워가고 알아가게 된다. 세상물정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물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인 줄을 몰랐다가, 어느 시점에 다가서게 되면 서서히 세상물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비로소 선연히 깨우치게 되어간다. 그것이 이른바 인생살이의 실체다.

이제 그의 산곡작품을 통하여 그가 묘사한 警世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南呂] 四塊玉: 警世

狗探湯, 魚着網, 急走沿身痛着傷, 柳腰花貌斜魔旺, 柳弄嬌, 花艷粧, 君莫賞.¹⁵⁾

13) 이 분야에 대한 研究業績으로는 孫克寬의 《蒙古漢軍與漢文化研究》·《元代漢文化之活動》, 蒙思明의 《元代社會階級制度》, 袁冀의 《元史研究論集》·《元史論叢》등을 들 수 있다.

14) 《李太白全集》(臺北: 九思出版有限公司, 1979. 3.), 162쪽.

15) 隋樹森, 같은 책, 477쪽.

끓는 물에 허를 내려고 하는 개.

그물 속에 걸려든 물고기.

후다닥 튀지만 이미 피부는 아픔 속에 벗겨지고 상처를 입는다.

女人의 날씬한 허리와 고운 얼굴은 그대를 태워 재로 만드는 불길이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흔들리는 여인의 허리는 매혹적이고,

꽃잎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은 매력적이라 하지만,

그대는 가까이 다가가 감상하려 하지 말 것이다.

曾瑞는 이 작품 가운데서 여색에 대하여 특히 조심하며 멀리 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의 제목을 「警世」라고 붙이고 있다. 孔子는 일찍이 「나는 德을 좋아하기를 女色을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¹⁶⁾라고 했고, 또 「君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젊었을 적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경계할 것은 女色이다. 壯年이 되면은 혈기가 한창 강성하므로 경계할 것은 싸움이다. 노년이 되면 혈기가 쇠잔해졌으므로 경계할 것은 몰욕이다.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¹⁷⁾라고 했다. 그리고 《孟子》〈告子〉上에는, 「食과 色은 사람의 본성이다. (食色, 性也.)」라는 告子の 말이 보인다. 인생에 있어 이성에 대한 그리움 또는 사랑이란 참으로 난해하기 그지없는 숙제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食의 욕념과 더불어 우리 인생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시련이자 짐이기도 하다.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며, 특히 그것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여자보다 더욱 더 공격적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섭리나 조화의 결과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은 모두 가룟 유다가 되어 고뇌하고 갈등한다. 그것이 진정 신의 섭리인가 하는 의문이 언제나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괴롭힌다. 이 인간세상은 자고이래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자와 여자는 장성하게 되면 절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결국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시 장성하여 다시 서로를 그리워하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기를 반복한다. 이는 인류를 지탱하고 연속하게 하는 하나의 근원적인 힘이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군거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회를 만들고 법을 제정했다. 그 법은 우리 사회에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16) 金學主 《論語》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6. 서울. 254쪽.

17) 金學主, 같은 책, 379쪽.

때로는 정의와 질서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외나 예법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형법·형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略法 3장은 살인·절도·간음에 대한 금법이며, 이는 우리 인류 형법·형률의 3大 핵심적 요소이다.

會瑞는 이 작품 가운데서 여색에 미혹되어 다가가는 사내를 「狗探湯」의 개와 「魚着網」의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헛바닥을 데이게 만들고야 마는 펄펄 끓는 물인 줄도 모르고 성급하게 달려드는 개의 처지나, 잡혀 죽을 줄도 모르고 눈앞의 먹이에만 이끌려 들어가 그물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물고기와 같은 처지가, 바로 「정욕에 눈먼 사내들의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會瑞는 이 작품에서 여인을 「柳腰花貌斜魔旺」「柳弄嬌」「花艷粧」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여인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력은 귀신의 유혹하는 힘이다. 「귀신(鬼)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未) 상태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魅力」¹⁸⁾이다. 관능적 마력을 지니고 있는 여인의 힘이다. 會瑞는 그런 여인의 매력을 감상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일부일체제」는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의 고뇌와 투쟁 끝에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게된 성욕에 대한 공평한 분배체제라고 생각된다. 會瑞는 바로 이 성욕 곧 여색에 대한 욕망의 묘사를 통하여, 그가 살아간 시대사회의 험난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南呂] 四塊玉: 村夫走院

逞富豪. 沾花草. 遍體村筋不會挑. 入門着幾連珠炮. 骨髓剉. 腦子掏. 可早覺.¹⁹⁾

그대
돈 많다고 뽐내고,
여색에나 탐닉하다보면,
온몸의 근육
더 이상 뛰어 움직이지 않을 날이
찾아오게 된다.
그 대문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속사포를 맞게 된다.
팔수가 도려내어지고,
뇌수가 흘러나오게 된다.
늦기 전에 그대
서둘러 깨달아야 한다.

18) 柳正基, 앞의 책, 231쪽.

19) 隋樹森, 앞의 책, 490쪽.

이 작품 역시 會瑞의 여색에 대한 탐닉을 경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돈 많다고 빠지고 여색이나 탐닉하다보면 언젠가는 패가망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 오게 된다고 말한다. 「입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을 상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은 관아의 죄인을 다스리기 위하여 형틀이 준비되어 있는 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후에 찾아 들어가는 지옥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村夫走院〉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에서도 「院」이 형장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나아가서 그 폭을 넓혀 생각해본다면 인생여정 전반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물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학은 실상 꿈꿈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 세상물정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인생이란 이 세상물정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이 세상물정이란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혹은 이 세상의 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온갖 종교들은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 중생들에게 바로 이 세상물정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작품 속의 村夫는 좁게는 會瑞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넓게는 元代라는 난세를 살아간 漢族 지식인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中呂] 喜春來: 未遂

功名希望何時就, 書劍飄零甚日休. 算來著甚可消愁. 除是酒. 醉倚仲宣樓.²⁰⁾

功名の 꿈

어느 때라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書劍의 떠도는 삶

그 어느 날에야 그쳐질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본다.

그 무엇으로 이 시름 달래볼 수 있을까?

술 이외에 달리 그 무엇이 있어

이 시름 달래볼 수 있을까?

취하여 仲宣樓에 올라 기대어 선다.

이 작품에서 會瑞는 그 자신의 부귀공명에 대한 열망을 솔직하게 꾸밈없이 그려내고 있다. 그 자신을 불운했던 시절의 王粲에 비교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同病相憐

20) 隋樹森, 앞의 책, 490쪽.

의 情에 해당하는 구조이다. 中國 傳統社會에서 지식인이 나아갈 길이란 오로지 한 길, 관료사회로 진출하는 그 길 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맹자가 「선비가 出仕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다(士之仕也, 猶農夫之耕也),」²¹⁾라고까지 했을 것인가? 孔子조차도 자신이 쓰임 받기를 열망하여, 「富貴가 만약 가히 추구할만한 성격의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드는 천한 직분이라도 나는 그걸 위해 하겠다. 만약 추구할만한 성격의 것이 못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길을 따르겠다.(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²²⁾라고 하지 않았던가? 관료사회는 지식인계급의 활동무대였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듯이, 사인계급도 관료사회를 벗어 나오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치국평천하라는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것도,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모두 다 관료사회로 나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元代는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지식인계급이 가장 천대받고 폄박당하였던 시대였다. 지식인은 심지어 창녀보다도 못한 처지였다. 거지와 창녀 사이라는 비천한 신분을 겨우겨우 유지해나가고 있었다.²³⁾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원대의 산곡작가들은 자신들의 처한 난국을 산곡작품을 통하여 여지없이 숨김없이 다 토로하고 있다. 산곡작품은 실로 원대 지식인들의 은둔찬가를 합창하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처에 은둔을 노래하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구가하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山林者의 즐거움을 구가하였던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었다.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仲宣樓는 王粲에 대한 고사를 담고 있다. 왕찬은 三國시대 魏나라 高平 사람이다. 그의 字가 仲宣이었다. 博學多識하였고, 文詞敏贍했다. 蔡邕이 그의 재능을 귀히 여겨 어느 날 그의 집으로 왕찬이 찾아왔다는 전갈을 듣자 버선발로 나가 맞았다. 그때 미리 와 있던 손님들은 어떤 손님이기에 주인이 저렇게도 반겨 맞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잠시 후에 채옹의 손에 이끌려 안내되어온 사람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 손님들 모두가 깜짝 놀랐던 것은 물론이다. 그때 채옹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王公의 손자다. 異才가 있으며, 나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내 집의 서적·글월을 모두 이 소년에게 줄 것이다.(此王公孫也, 有異才, 吾不如也, 吾家書籍文

21) 張基樞 譯 《孟子》〈滕文公〉下 (서울: 汎潮社, 1986. 10.), 344쪽.

22) 金學主 譯 같은 책, 213쪽.

23) 謝枋得 《謝疊山集》卷二, 〈送方伯載歸三山序〉: 「滑稽之雄, 以儒爲戲者曰: 『我大元制典, 人有十等, 一官二吏, 先之者, 貴之也. 貴之者, 謂有益於國也. 七匠八娼, 九儒十丐, 後之者, 賤之也. 賤之者, 謂無益於國也.』嗟乎! 卑哉! 介乎娼之下, 丐之上者, 今之儒者也.」

章, 盡當與之.)”²⁴⁾

왕찬은 그런 인물이었다. 후일 그는 魏나라에 가서 出仕하였는데, 관직이 侍中の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그 왕찬이 荊州 지방에서 劉表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 때, 유표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자 울적하여서 누각 위에 올라가 자신의 심회를 노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登樓賦〉라는 작품이다. 증선루는 왕찬이 올라가 〈登樓賦〉를 지었던 바로 그 누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후 불우한 지식인의 자화상이라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

IV. 相思의 의미

元代 散曲의 양대 주제는 隱遁과 闖怨이라 할 수 있다. 전자를 전통사회 사인세계에서의 갈등의 결과라고 한다면, 후자는 남녀 사이의 연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사이의 사랑은 인류 문학의 영원한 주제가 된다. 그것은 이것이 전술한 바대로 식과 색이라는 인류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나아가서는 그리고 인류의 삶 전체라고 해도 좋을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이다.

曾瑞의 산곡작품 가운데서도 남녀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는 어떠한 난세상황 속에서도 남녀 사이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히 문학의 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기는 食과 色이 바로 산곡작품 속에서는 隱遁과 闖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양자가 원대사회 삶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 曾瑞의 산곡작품을 통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相思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中呂] 喜春來: 相思

你殘花惹那衣巾, 咱減腰圍債帶鉤, 這般情緒幾時休, 思配偶, 爭奈不自由.²⁵⁾

당신의 꽃다운 모습
몹시도 수척해졌다.
나 역시 메달라져서
허리띠 고리를 줄라매어야만 했다.

24) 《三國志》卷21, 魏志 21, 〈王魏二劉傳傳〉, (鼎文書局, 1978, 9, 臺北), 597쪽.

25) 隋樹森, 같은 책, 488쪽.

이런 슬픔의 느낌
 그 어느 때라야 그치게 되랴?
 (우리 각자의) 배우자를 생각한다.
 아아 이 얽매인 처지를 어찌할 것인가?

이 작품의 첫 시구 「你殘花態那衣巾(당신의 꽃다운 모습도 몹시 수척해졌다)」(卽
 를 뒤의 의미로 해석)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묘사일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메달라서 허리띠 고리를 조아야 했다(咱減腰圍繫帶鉤)」는 남자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우리 각자의) 배우자를
 생각한다. 아아 이 얽매인 처지를 어찌할 것인가?(思配偶。爭奈不自由)」라는 시구
 를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관계의 사랑은 아닌 것 같다. 서로 사랑해선 안될 불륜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기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일지도 모른다. 중국의 宋詞 시구 가운데에「우리 서로의 만남이 너무 늦었다(相見太
 晚)」라는 시구가 발견되는데, 이는 바로 이 작품 속의 사랑과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아도 가할 것이다. 불륜의 사랑은 문학과 도덕 사이의 어느 중간역 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中呂] 喜春來: 相思

鶯鶯作對關前世, 翡翠成雙約後期, 無緣難得做夫妻, 除夢裏, 鶯鶯各東西.²⁶⁾

원앙이 짝을 이룸도 전세의 인연이 있어야 해.
 비취가 짝을 이룸 역시 내세의 인연이 있어야 해.
 아무런 인연도 없이 어찌 부부가 될 수 있어?
 우리는 꿈속에서만 만나.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서로 놀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을 확인해야만 해.

이 작품은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
 가 부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부부로서 서로 헤어져 살아가는 아픔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고, 부부 아닌 사람이 서로 애태우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묘사
 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면 후자의 경우가 더욱 더 절실한 사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원앙이니 비취니 하는 詩語를 인용한 것을 보면 부부 사이의 사랑을 묘사한 것이라

26) 같은 책, 같은 쪽.

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除夢裏，驚覺各東西.(꿈속에서만 만난다.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서로 놀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을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시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부부로서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지만 꿈속에서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 작품만으로는 딱히 어느 경우라고 잘라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두고 曾瑞는 이 작품에서 인연과 연관시켜 그려내고 있다. 前世의 인연, 혹은 來世의 인연, 이런저런 모든 소중한 인연들이 있어야 비로소 부부 혹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인연설의 기초다.

V. 自適의 의미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自適主義가 형성되고 있었다.²⁷⁾ 그 사상적 배경은 주로 노장사상에서부터 연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점차 儒家思想에게까지 파급되어가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욕망을 극소화하고 정화시켜나감으로서 마음의 평화 곧 자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자적주의의 핵심이다. 자적주의는 자연에 친애한다. 자연은 중국에 있어 일찍부터 사회와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處士·逸民의 장이었다. 관료사회 지식인계급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지식인계급이 바로 처사·일민이 중심이 되는 야인 지식인그룹이었다. 巢父·許由는 가히 이들 그룹의 초기 단계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六朝시대를 이어 元代는 다시금 지식인과 자연이 친화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다. 이는 元代라는 독특한 시대상황이 만들어낸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었다. 원대 산곡을 읽어보면 도처에 욕망의 극소화 내지 정화를 통하여 자적하는 삶을 구가하는 정경들이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현실도피 내지 초월의 색채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曾瑞의 작품 가운데도 예외 없이 자연에 나아가 자적하는 삶의 양상이 그려져 있다. 인간의 삶은 富貴者의 삶과 山林者의 삶 사이의 갈등과 모순이라고 규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귀자로서의 삶의 길이 봉쇄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산림자의 길속에서 안주하고 자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안주와 자적의 모습이 曾瑞의 작

27) 「自適主義」에 대해서는 村上嘉實 著, 《六朝思想史研究》(六朝의 山水畫)(平樂寺書店, 1976. 3. 京都, 343-359쪽)를 참조할 것.

품 속에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湖山遺興選詩價，杖屨尋芳釋悶懷。村醪滿酌勸吾儕，杯莫側，聽唱喜春來。²⁸⁾

호수와 산 속의 詩興으로 詩價를 값고,
지팡이 짚고 미투리 신은 채로
꽃나무를 찾아가 울적한 심사 푼다.
시골 술 술독에 가득하니
술잔에 담아서 벗들에게 권한다.
벗들이 술잔을 놓아두지 말고 들이켜라.
내 喜春來라는 노래를 부를 터인즉
그대들 삼가 들어보아라.

이 작품에서 曾瑞는 참으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자적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자적주의가 발달하고 있었다. 노장사상은 자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세상살이가 험난해지면 험난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적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자연 가운데서 무욕무심의 경지를 터득하며, 「족함을 이는 자가 부자이다(知足者富)」²⁹⁾라는 삶의 지혜를 실천해나가게 된다.

「湖山遺興選詩價」에서 「詩價」라는 시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시채라는 말 가운데에는 시인이 전생으로부터 시인이 되어야만 하고 시를 써야만 한다는 부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시채라는 빛은 결코 쉽게 내던져버릴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어서, 마치 첫사랑의 추억처럼, 일생을 두고 시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하게 된다.

「詩價」라는 말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싶은 시어가 있다. 「詩魔」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시마란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고 못살게 구는 마귀다. 시인은 평생을 시마에게 들볶이며 살아가야만 한다. 그것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아마 서양의 음악의 신 뮤즈가 바로 동양에서는 시마로 나타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시인의 想念 속에 자리를 잡고 일생을 따라 다닌다. 일생을 두고 결코 잠시도 잊을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는 존재, 그것이 시마다. 그리고 그 시마야말로 시인이 전생으로부터 지니고 온 빛, 곧 시채의 주인공이다.

또 이 작품 가운데에는 「喜春來」라는 곡명이 나타난다. 잠시 이 곡명의 의미에 대

28) 隋樹森, 같은 책, 490쪽.

29) 《新譯老子讀本》, 老子 33章, 三民書局, 1982. 1. 臺北, 64쪽.

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며, 사계절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간주된다. 봄은 생명 그 자체이며, 봄의 도래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노래한다는 것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라이는 《批評의 解剖》 가운데서 봄의 미토스를 회극에 비교했다.³⁰⁾ 이 역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이미지를 기쁨과 즐거움에 비유한 결과라 할 것이다.

[中呂] 喜春來：江村即事

女兒收網臨江哆，稚子垂釣靠岸沙。笛聲鶯雁出蒹葭，清淡煞。衰柳攬魚槎。

딸은 강가에서 그물을 거두어들이다가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만다.
어린 아들 녀석은 강가에 기대어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때아닌 피리 소리 들려와
놀란 기러기들 갈대밭에서 푸드득 푸드득 날아오른다.
맑고 청결하기 그지없는 정경이다.
시든 수양버드나무에
고기잡이 멧목이 묶여져 있다.

이 작품은 江村의 평화로운 정경에 대한 스냅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채화처럼 맑고 담담하게 강촌의 정경이 그려져 있다. 이는 어쩌면 曾瑞가 심중으로 염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曾瑞는 이 강촌의 정경에 대해 주저 없이「清淡煞」이라는 評語를 내리고 있다.

딸이 강가에서 그물을 거두어들이다가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 정도로 물고기가 그물 속에 많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린 아들 녀석 역시 낚싯대 드리우고 姜太公과도 같은 포우즈를 취하고 있다. 피리 소리에 놀라 날아오르는 기러기들 역시 강촌의 평화로운 정경에 한 몫을 담당한다. 시든 수양버드나무에 묶여져 있는 고기잡이 멧목 역시 강촌의 한적하고 쓸쓸한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VI. 結語

본고에서 필자는 曾瑞의 산곡작품 몇 수를 골라 그 가운데 나타난 인생과 세상의

30) 이선영·박대상 공저 《문학비평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1. 서울. 21쪽.

모습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는 曾瑞의 시선 속으로 들어온 그 당시의 인생과 세상의 모습이었다. 원대를 살아갔던 漢族, 특히 漢族 지식인들이 느껴야 했던 삶은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그 당시 시대상황, 인생과 세상의 모습을 산곡작품을 통하여 진실하고 숨김없이 묘사해내고 있었다.

曾瑞는 산곡작품을 통하여 그의 세상 읽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험악한 풍파가 몰아치는 바다 같은 형국이었다. 이는 錢穆이《國史大綱》에서 蒙古의 통치를 「폭풍우의 도래(暴風雨的來臨)」³¹⁾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曾瑞는 그런 시대사회 속에 처하여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적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그 노력한 삶의 흔적이 그의 산곡작품을 낳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曾瑞는 그의 산곡작품을 통하여 난세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비애와 난세를 헤쳐 가는 지식인의 지혜를 아울러 전달하고 있다. 수많은 원대 산곡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는 시대의 관찰자·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는 부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림자로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최대한 찾아나가고자 노력했다. 그가 노래한 산곡작품은 대체로 그가 바라본 난세에 대한 쓸쓸하고 슬픈 노래였다. 그러나 그 난세의 노래는 비조로만 가득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老莊思想이 배태한 자적주의가 작용함으로써 가능해졌던 逍遙遊의 세계 속의 삶의 양상이었다.

【參考文獻】

- 金學主 譯 《論語》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5. 6.
 張基樞 譯 《孟子》 서울, 汎潮社, 1986. 10.
 余培林 譯註 《新譯老子讀本》臺北, 1982. 1.
 王忠林 譯註 《新譯荀子讀本》臺北, 三民書局, 1977. 2.
 邊欽立校註 《陶淵明集》臺北, 里仁書局, 1982. 9.
 《李太白全集》臺北, 九思出版社, 1979. 3.
 《歐陽修, 歐陽文忠公文集》臺北, 河洛圖書出版公司, 1978. 3.
 隋樹森 《全元散曲》臺北, 臺灣中華書局, 1976. 4.

31) 錢穆,《國史大綱》, 正中書局, 1956. 1. 臺北, 451쪽.

- 孫克寬 《元代漢文化之活動》 臺北，臺灣中華書局，1968. 9.
錢穆 《國史大綱》 臺北，正中書局，1956. 1.
小尾郊一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春川，江原大學校出版部，1988. 12.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 京都，平樂寺書店，1976. 3.
柳正基 《說文解字》 서울，亞細亞文化社，1988.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1977. 4.
拙著 《元代散曲所反映之文人思想》 臺北，國立政治大學中文研究所 學位論文，1986. 6.
이선영 · 박태상 共著 《문학비평론》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1999. 1.
김현 《행복한 책읽기》 서울，知性社，1994. 7.

【中文提要】

文以探討元散曲作家會瑞的散曲作品所反映的「嘆世」「警世」「相思」「自適」的意義爲其目的。

正如大家所知，元朝在整個中國歷史上實爲一個最典型的黑暗混亂時代之一。處在這樣的時代，漢族知識分子皆過着極其痛苦悲哀的生活。他們之中一部分，即元代散曲作家，則利用散曲這一個文學題材來表現出他們內心的憤懣和寂寞。而會瑞這一散曲作家也不是例外，他也是利用散曲作品來表現出亂世文人的悲哀了。

我在這一篇論文理，把他的一些散曲作品分爲嘆世·警世·相思·自適等四個部分，而通過這種主題敘述了會瑞如何地描寫出亂世文人悲哀的心情。他所描寫的元朝是非常可怕而不幸的時代，也是非常悲哀·寂寞的時代。我們通過他的作品，都可以明顯地體會出來。

會瑞他以各樣各色的手法，描寫了人生可歌可泣的各種面貌。在會瑞的散曲作品裏，也可以發現人生的兩大重要境界是食和色這兩個部分，也就是說飲食男女部分。會瑞的嘆世·警世·相思·自適，正是把這樣的人生面貌描寫出來的。如果說嘆世·警世·相思是描寫人世之間的苦惱，則也可以說自適是描寫超脫如此苦惱的人世的。